

추위도 도망갈 화력…불 뿜는 K9 앞에 두려움 없다

육군5사단 명문포병대대 사격훈련
자주포·UAV 등 투입 임무수행 숙달

육군5보병사단 명문포병대대가 실전적인 사격훈련으로 화력대비태세를 끌어올렸다.

대대는 18일 경기 연천군 다락대사격장에서 포탄사격훈련을 전개했다. 훈련에는 장병 150여 명을 비롯해 K9 자주포 1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K1 구난전차, 무인 항공기(UAV) 등이 투입됐다.

장병들은 추위 속에서도 표적 획득부터 사격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했다. 사격절차 외에도 실제 전시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감시자산, 수색대대와 연계한 임무를 수행하며 작전계획에 맞는 사격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훈련에 참여한 황선우(대위) 1포대장은 “다양한 관측자산을 활용해 사격하며 자신감과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며 “언제든지 적 화력 도발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육군5보병사단 명문포병대대가 18일 전개한 포탄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가 불을 뿜고 있다.

사진 제공=신문선 소위

교육은 부드럽게 효과는 강력하게

육군55사단 용성여단 정신전력교육
영화·음악·공연 접목 오감만족 시간

육군55보병사단 용성여단이 영화와 음악, 춤을 이용해 장병들의 오감(五感)을 만족시키는 장을 마련했다.

여단은 17일 장병 스트레스 완화와 안보 의식 제고, 부대 사기·단결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접목 특별 정신전력교육’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교육은 대한민국

과거·현재·미래를 영화, 음악, 공연으로 풀어낸 복합문화예술 형식으로 마련됐다. 장병들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와 고도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노래 ‘가족사진’을 들으며 부모 세대의 현신과 노력에 공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K팝 메들리 무대가 펼쳐졌다. 장병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우리들의 꿈’을 합창하며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했다.

김병규(대령) 여단장은 “대한민국 역사 를 문화예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느끼고 위



육군55보병사단 용성여단 장병들이 17일 ‘문화예술 접목 특별 정신전력교육’에서 밴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부대 제공

상을 체득하는 시간이 됐다”며 “장병들이 있는 정신전력교육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안보의식을 높일 수 말했다.

최한영 기자

군인이 좋다

국방의 모든 순간!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국방일보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국방일보